

## 청소년의 약물남용과 문제행동 유형간의 관계 분석 - 제주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

金 賢 淑\*

### Relationship between Drug Abuse and the Problem Behavior Patterns among Adolescents

Hyeon Suk Kim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attempt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drug abuse and the other problem behavior Patterns among high school students in Cheju.

In order to achieve these set-goals, questionnaires were finally supplied to the total 379 case of 9 high school from October to December, 1990.

The collected data were processed using the SPSS-X computer program and statistically analyzed by the Chi-square method and percentag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

Among the 370 adolescents, 32.4% of students experienced cigarette smoking in their life, adolescents who experienced alcohol drinking were 46.8%, 0.5% of the students ever used marihuana; cocaine 0.3%, stimulant 3.2%, hallucinogen and inhalants 0.5%, tranquilizer 1.4%, analgesics 31.6%, antitussives 6.5%, antihistamines 1.9%. And all students never experienced the amphetamines and narcotics.

The rates of drug use except stimulant and antitussive were higher in the male than in the female students.

For the analysis of personal identifying datum, the rates of experienced smokers increased among groups of buddhist and the rates of experienced alconol drinking increased among groups of no religion. Drug abuser increased among the group lower socio-economic status student, the adolescents whose parents have traditional education point of view. And it was also higher in those who were living only one than in those who were living together.

\* 제주간호전문대학

Most students tended to use drugs after 17 or 18 years old.

Drug users were more inclined to commit other problem behaviors when compared non-drug users.

In the conclusion of the above results, it will be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drug problem of adolescent. Drug abuse of students must be seen in an environmental context including family, school, peer group and society and not solely as the characteristics of an individual adolescent. And their parents and teachers must be on the alert for the behavior changes of their children such as changes of school performance, neglecting homework, tardiness or truancy from school, runaway from home, and mingled with bad companions, etc.

We must recognize that drug abuse is frequently symptomatic of problems in the adolescent's environment.

## I. 서 론

청소년기는 신체적 및 정서적 변화가 두드러지며, 사회·심리적 적응에 어려움이 많은 정서적 적응기로, 양심과 충동의 갈등 속에서 자아 의식을 확립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충동과 갈등을 적절히 해소시키지 못할 경우 주위환경에 마찰을 보이거나 반항적 또는 공격적 반응을 나타내기도 하며, 미성숙에서 오는 호기심이나 도전, 친구들의 권유나 동질성의 유지를 위해 약물에 절하게 된다.<sup>1)</sup>

Connel<sup>2)</sup>에 의하면 청소년기는 기분변화가 심하고 우울한 성향이 많고,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사회적 민감도가 매우 높은 시기이다. 독립성을 찾고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투쟁함과 동시에 외로움과 괴로움을 많이 느끼는 시기이므로 약물의존에 취약한 시기라고 하였다. 또한 Macdonald<sup>3)</sup>는 청소년은 자존심이 낮거나 소외감을 가지고 있고, 대인관계나 현실상황의 처리능력이 부족하여 약물남용의 위험이 많다고 하였다.

종교의식에서 비롯된 향정신성 약물(psychotropic agents)의 미의학적 사용이, 현대적 의미를 갖는 약물남용 행위로 된 것은 60년대 불안한 미국의 사회상에 편승하여 시작되어, 그들 젊은이에 의해서 전세계로 퍼졌다.<sup>4)</sup> 일본은 약물남용이 사회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히로뽕(methamphetamine)은 학생층, 근로자 및 주부층에 파고 들어 심각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 본드 및 흡입제 사용도 히로뽕의 2배 이상에 이르고 있다.<sup>5)</sup>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60년대를 전후

하여 마약문제가 남용되기 시작하여 최근 청소년층에서는 본드흡입파 러미나(진해제)의 대량 남용이 현저하게 많아져 가고 있고 심지어 각종 약물들을 혼합 사용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어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청소년의 약물남용이 문제시 되는 이유는, 약물남용 청소년의 증가추세, 약물사용 연령의 연소화, 호기심에 의한 남용, 일시 스트레스로 인한 상습적 각성제의 복용, 약물남용과 비행 혹은 범죄와의 밀접한 상관 관계인데, 특히 비행 청소년의 약물남용 빈도가 높고<sup>6)</sup> 일반 청소년에서도 약물남용이 비행의 촉매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약물남용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행동 유형과 약물남용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 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기간

제주지역에 거주하며 9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390명을 표본조사하여 불완전한 응답을 한 20명을 제외하고, 실제 자료 분석에 사용된 인원은 370명으로 유효 응답률은 94.9%였다. 조사기간은 1990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행해졌다.

### 2. 조사방법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자료수집은 질문지를 사용하였는데 미국 국립약물남용연구소(NIDA :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Michigan대학의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에서 실시하는 조사방법과 세계보건기

구(WHO)가 발행한 학생들의 약물남용 실태조사 지침서의 설문내용을 참고하여 만든 한국약물남용연구소의 설문지를 본 조사에서 사용하였다.<sup>7), 8)</sup>

모집된 자료는 SPSS-X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chi^2$ -test와 백분율을 통해 분석하였다.

### 3. 조사내용

본 연구에서는 향정신성 약물 및 남용 가능성이 있는 약물을 포함하여 모두 14가지 약물인 술, 담배, 대마초, 코카인, 각성제, 히로뽕, 마약, 환각제, 본드, 신경안정제, 수면제, 진통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등의 남용성과 문제행동과 약물남용 경험도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 III. 조사결과

### 1. 약물사용 빈도

약물사용 빈도를 볼 때 흡연(cigarettes)의 경우 학생들의 32.4%(남자 55.0%, 여자 5.9%)가 흡연경험이 있고, 음주(alcohol) 경우 46.8%(남자 70.5%, 여자 18.8%)가 음주경험이 있었다. 대마(marihuana)는 학생들의 0.5%가 코카인

(Cocaine)은 0.3%가 사용 경험이 있었고, 각성제(stimulants)는 3.2%가 복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로폰(amphetamine)과 마약(narcotics)은 사용 경험자가 없었으며 환각제(hallucinogens)와 본드(inhalants)는 각각 0.5%의 학생들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안정제(tranquilizers)는 학생들의 1.4%가, 진통제(analgesics)는 31.6%가, 진해제(antitussives)는 6.5%(남자 5.5%, 여자 7.6%)가 사용 경험이 있고, 항히스타민제(antihistamines)는 1.3%의 학생이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왕기(1989)<sup>9)</sup>등이 조사한 춘천·춘성지역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약물사용 빈도 결과와 비교하면, 흡연의 경우 44.5%(남자 62.2%, 여자 26.8%)가, 음주는 70.1%(남자 92.09%, 여자 48.2%), 각성제 15.0%, 본드 3.3%, 진통제 32.4%, 진해제 1.5%로 나타나 진해제와 진통제를 제외하고 제주지역 고등학생이 전반적으로 낮은 경험률을 보였다. 제주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김현숙<sup>10)</sup>(1990)이 조사한 음주경험률은 47.1%(남자 67.4%, 여자 27.8%)로 나타나 비슷한 경험률을 보였다(Table 1).

TABLE 1.

Drug Use Rate of Students

	EXPERIENCED DRUG USER			EX-DRUG USER			CURRENT DRUG USER			NEVER DRUG USER		
	MALE N=200	FEMALE 170	TOTAL 370	MALE 200	FEMALE 170	TOTAL 370	MALE 200	FEMALE 170	TOTAL 370	MALE 200	FEMALE 170	TOTAL 370
CIGARETTES	110 (55.0)	10 (5.9)	120 (32.4)	4 (2.0)	1 (0.6)	5 (1.4)	89 (44.5)	3 (1.8)	92 (24.9)	90 (45.0)	160 (94.1)	250 (67.6)
ALCOHOL	141 (70.5)	32 (18.8)	173 (46.8)	11 (5.5)	6 (3.5)	17 (4.6)	95 (47.5)	13 (7.6)	108 (29.2)	59 (29.5)	138 (81.2)	197 (53.2)
MARIJUANA	2 (1.0)	— (0.5)	2 (0.5)	— (—)	— (—)	— (—)	1 (0.5)	— (—)	1 (0.3)	198 (99.0)	170 (100.0)	368 (99.5)
COCAINE	1 (0.5)	— (—)	1 (0.3)	— (—)	— (—)	— (—)	— (—)	— (—)	— (—)	199 (99.5)	170 (100.0)	369 (99.7)
STIMULANTS	6 (0.3)	6 (3.5)	12 (3.2)	— (—)	— (—)	— (—)	3 (1.5)	— (—)	3 (0.8)	194 (97.0)	164 (96.5)	358 (96.8)
HALLUCINOGENS	2 (1.0)	— (0.5)	2 (0.5)	— (—)	— (—)	— (—)	— (—)	— (—)	— (—)	198 (99.0)	170 (100.0)	368 (99.5)
INHALANTS	2 (1.0)	— (0.5)	2 (0.5)	— (—)	— (—)	— (—)	— (—)	— (—)	— (—)	198 (99.0)	170 (100.0)	368 (99.5)
TRANQUILIZERS	4 (2.0)	1 (0.6)	5 (1.4)	1 (0.5)	— (—)	1 (0.3)	— (—)	— (—)	— (—)	196 (98.0)	169 (99.4)	365 (99.6)
HYPNOTICS	9 (4.5)	4 (2.4)	13 (3.5)	— (—)	— (—)	— (—)	4 (2.0)	2 (1.2)	6 (1.6)	191 (95.5)	166 (97.6)	357 (96.5)
ANALGESICS	66 (33.0)	51 (30.0)	117 (31.6)	9 (4.5)	5 (2.9)	14 (3.8)	30 (15.0)	24 (14.1)	54 (14.6)	134 (67.0)	119 (70.0)	253 (68.4)
ANTITUSSIVES	11 (5.5)	13 (7.6)	24 (6.5)	5 (2.5)	— (—)	5 (1.4)	2 (1.0)	— (—)	2 (0.5)	189 (94.5)	157 (92.4)	346 (93.5)
ANTIHISTAMINES	6 (3.0)	1 (0.6)	7 (1.9)	3 (1.5)	— (—)	3 (0.8)	— (—)	1 (0.6)	1 (0.3)	194 (97.0)	169 (99.4)	363 (98.1)

## 2. 최초 약물사용 연령

대부분의 약물에서 남·여학생의 경우 모두 17~18세 사이에서 약물사용 첫 경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해제(antitussives)의 경우 10세이전의 사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2).

TABLE 2. Initial Drug Use Age for Fourteen Types of Drugs

	BEFORE 10		11-12		13-14		15-16		17-18		AFTER 19	
	MALE FEMALE N=200 170		MALE FEMALE 200 170		MALE FEMALE 200 170		MALE FEMALE 200 170		MALE FEMALE 200 170		MALE FEMALE 200 170	
CIGARETTES	2 (1.0)	1 (0.6)	—	2 (1.2)	7 (3.5)	—	21 (10.5)	1 (0.6)	66 (33.0)	3 (1.8)	14 (7.0)	3 (1.8)
ALCOHOL	4 (2.0)	1 (0.6)	1 (0.5)	—	6 (3.0)	—	28 (14.0)	5 (2.9)	87 (43.5)	20 (11.8)	15 (7.5)	6 (3.5)
MARIHUANA	—	—	—	—	1 (0.5)	—	1 (0.5)	—	—	—	—	—
COCAINE	—	—	—	—	—	—	—	—	1 (0.5)	—	—	—
STIMULANTS	—	—	—	—	1 (0.5)	—	4 (2.0)	2 (1.2)	1 (0.5)	3 (1.8)	—	1 (0.6)
HALLUCINO-GENS	—	—	—	—	—	—	—	—	—	—	1 (0.3)	— (0.5)
INHALANTS	—	—	—	—	—	—	—	—	2 (1.0)	—	—	—
TRANQUILIZERS	—	—	—	—	—	—	—	—	2 (1.0)	1 (0.6)	2 (1.0)	—
HYPNOTICS	1 (0.5)	—	—	—	—	—	—	2 (1.2)	7 (3.5)	1 (0.6)	1 (0.5)	1 (0.6)
ANALGESICS	17 (8.5)	11 (6.5)	8 (4.0)	3 (1.8)	6 (3.0)	6 (3.5)	11 (5.5)	12 (7.1)	21 (10.5)	15 (8.8)	3 (1.5)	4 (2.4)
ANTITUSSIVES	5 (2.5)	8 (4.7)	1 (0.5)	—	—	—	2 (1.0)	4 (2.4)	3 (1.5)	1 (0.6)	—	—
ANTIHISTAMINES	1 (0.5)	1 (0.6)	1 (0.5)	—	—	—	1 (0.5)	—	3 (1.5)	—	—	—

## 3. 사용일수

담배의 경우 남학생의 24.5%와 여학생의 0.6%가 매일 흡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술의 경우 남학생의 45%가 매일 음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각성제는 남학생의 0.5%가, 진통제는 남학생의 1.0%가 매일 남용하였다(Table 3).

## 4. 약물남용과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 분석

### 1) 성별

남·여별로 약물남용 실태를 보면, 각성제와 진해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약물이 여자보다 남

자의 경험도가 높았다.

### 2) 종교

담배는 종교가 불교인 경우 38.3%로 흡연율이 높고, 기독교는 18.0%로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P<0.06$  ( $\chi^2=9.45$ , df=4)에서 비교적 유의하였다. 음주는 종교가 없는 경우 54.1%로 가장 높은 경험률을 보였고  $P<0.02$  ( $\chi^2=12.93$ , df=4)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 3) 경제상태

흡연의 경우 경제상태가 상(上)과 하(下)라고 답한 경우 각각 26.7%, 43.8%로 경제상태가

TABLE 3. Frequency of Drug Use during the Previous 30 Days

	1-5DAY		6-19DAY		ABOVE 20DAY		EVERY DAY	
	MALE N=200	FEMALE 170	MALE 200	FEMALE 170	MALE 200	FEMALE 170	MALE 200	FEMALE 170
CIGARETTES	22 (11.0)	1 (0.6)	7 (3.5)	1 (0.6)	11 (5.5)	—	49 (24.5)	1 (0.6)
ALCOHOL	68 (34.0)	13 (7.6)	12 (6.0)	—	6 (3.0)	—	9 (4.5)	—
MARIHUANA	1 (0.5)	—	—	—	—	—	—	—
STIMULANTS	2 (1.0)	—	—	—	—	—	1 (0.5)	—
HYPNOTICS	4 (2.0)	2 (1.2)	—	—	—	—	—	—
ANALGESICS	25 (12.5)	22 (12.9)	2 (1.0)	1 (0.6)	1 (0.5)	1 (0.6)	2 (1.0)	—
ANTIHISTAMINES	—	1 (0.6)	—	—	—	—	—	—

빈곤할수록 경험도가 높게 나타났다. 음주의 경우도 경제상태가 상(上)은 40.0%, 하(下)인 경우 60.4%로 나타나 빈곤할수록 경험도가 높았다. 진통제와 진해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약물이 경제상태가 빈곤할수록 사용 경험이 많았고, 특히 수면제의 경우 경제상태가 하(下)인 경우 복용을 많이 하였고 이는  $P<0.00$  ( $\chi^2=28.14$ , df = 3)에서 매우 유의하였다.

#### 4) 동거형태

동거형태에 따른 약물경험도를 보면 흡연과 음주의 경우 혼자 거주할 때 경험률이 각각 47.1%, 64.7%로 가장 높았고 수면제, 진통제의 경우도 11.8%,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5) 부모의 교육방식

흡연과 음주의 경우 부모의 교육방식이 보수적일수록 각각 44.1%와 55.9%로 경험률이 높고, 민주적일수록 22.7%와 37.6%로 경험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각각  $P<0.005$  ( $\chi^2=13.05$ , df = 3)와  $P<0.04$  ( $\chi^2=8.59$ , df = 3)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드와 신경안정제, 수면제의 경우도 부모의 교육방식이 보수적일 때 약물경험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 5. 약물남용 청소년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약물사용 경험자들이 비경험자들에 비교하여 문제행동 정도가 높아 흡연의 경우 약 4배, 음주와 대마의 경우 약 5배, 각성제는 1.5배, 본드의 경우 약 3배 정도의 문제행동 경험의 차이를 보였다(Table 5). 또한 문제행동 경험자들이 약물사용 경험도가 높게 나타났다. 흡연의 경우 문제행동 경험자가 비경험자보다 3배 정도 높았고, 환각제와 본드의 경우는 약 8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문제행동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단결석을 경험한 학생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14.9%인데 그중 70% 학생은 흡연과 음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출을 해 본 경우는 전체의 15.9%로 김현수<sup>11)</sup>(1980)의 16.0%와 유사하며 가출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약물사용 경험도가 높았다. 성행위를 경험한 8.4% 학생 중 흡연은 80.6%가, 음주는 87.1%로 높은 경험률을 보였고 수면제와 진통제 또한 약물사용 경험이 타 문제행동의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란비디오를 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41.6%로 높았는데 그중 흡연은 58.4%, 음주는 75.3%가 경험하였다(Table 6).

TABLE 4. Drug Use Rate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ents

	CIG	ALC	MAR	COC	STM	HAL	INH	TRN	HYP	ANG	ATT	AHT	TOTAL	
<b>성별 :</b>														
남	110 (55.0)	141 (70.5)	2 (1.0)	1 (0.5)	6 (3.0)	2 (1.0)	2 (1.0)	4 (2.0)	9 (4.5)	66 (33.0)	11 (5.5)	6 (3.0)	200 (54.1)	
여	10 (5.9)	32 (18.8)	— —	— —	6 (3.5)	— —	— —	1 (0.6)	4 (2.4)	51 (30.0)	13 (7.6)	1 (0.6)	170 (45.9)	
<b>종교 :</b>														
기독교	11 (18.0)	21 (34.4)	— —	1 (1.6)	1 (1.6)	— —	— —	— —	2 (3.3)	15 (24.6)	5 (8.2)	— —	61 (16.5)	
천주교	10 (31.3)	10 (31.3)	— —	— —	1 (3.1)	— —	— —	1 (3.1)	1 (3.1)	14 (43.8)	2 (6.3)	1 (3.1)	32 (8.6)	
불교	49 (38.3)	63 (49.2)	1 (0.8)	— —	6 (4.7)	1 (0.8)	1 (0.8)	2 (1.6)	7 (5.5)	45 (35.2)	5 (3.9)	— —	128 (34.6)	
유교	— —	— —	— —	— —	— —	— —	— —	— —	— —	1 (33.3)	— —	— —	3 (0.08)	
무교	50 (34.2)	79 (54.1)	1 (0.7)	— —	4 (2.7)	1 (0.7)	1 (0.7)	2 (1.4)	3 (2.1)	42 (28.8)	12 (8.2)	6 (4.1)	146 (39.5)	
<b>경제상태 :</b>														
상	4 (26.7)	6 (40.0)	1 (6.7)	— —	— —	— —	— —	— —	— —	2 (13.3)	— —	— —	15 (4.1)	
중	95 (30.9)	138 (45.0)	1 (0.3)	1 (0.3)	10 (3.3)	1 (0.3)	1 (0.3)	1 (0.3)	4 (1.3)	10 (3.3)	105 (34.2)	24 (7.8)	6 (2.0)	307 (83.0)
하	21 (43.8)	29 (60.4)	— —	— —	2 (4.3)	1 (2.1)	1 (2.1)	1 (2.1)	1 (6.3)	3 (20.8)	10 (2.1)	— —	1 (2.1)	48 (40.0)
<b>동거형태 :</b>														
부·모·형제	89 (31.8)	133 (47.5)	2 (0.7)	— —	11 (3.9)	2 (0.7)	1 (0.4)	3 (1.1)	11 (3.9)	88 (31.4)	16 (5.7)	7 (2.5)	280 (75.7)	
부·형제	1 (16.7)	3 (50.0)	— —	— —	— —	— —	— —	— —	— —	1 (16.7)	— —	— —	6 (1.6)	
모·형제	15 (46.9)	14 (43.8)	— —	— —	— —	— —	— —	1 (3.1)	— —	11 (34.4)	3 (9.4)	— —	32 (8.6)	
형제	7 (20.0)	12 (34.3)	— —	— —	1 (2.9)	— —	— —	1 (2.9)	— —	10 (28.6)	4 (11.4)	— —	35 (9.5)	
혼자	8 (47.1)	11 (64.7)	— —	1 (5.9)	— —	— —	1 (5.9)	— —	2 (11.8)	7 (41.2)	1 (5.9)	— —	17 (4.6)	
<b>부모의 교육방식</b>														
민주적	32 (22.7)	53 (37.6)	— —	— —	6 (4.3)	— —	— —	2 (1.4)	2 (1.4)	36 (25.5)	10 (7.1)	1 (0.7)	141 (38.1)	
보수적	45 (44.1)	57 (55.9)	2 (2.0)	— —	3 (2.9)	1 (1.0)	2 (2.0)	2 (2.0)	7 (6.9)	35 (34.3)	5 (4.9)	2 (2.0)	102 (27.6)	
개방적	40 (34.8)	57 (49.6)	— —	1 (0.9)	3 (2.6)	1 (0.9)	— —	1 (0.9)	4 (3.5)	45 (39.1)	9 (7.8)	4 (3.5)	115 (31.1)	
무관심	3 (25.0)	6 (50.0)	— —	— —	— —	— —	— —	— —	— —	1 (8.3)	— —	— —	12 (3.2)	
<b>총 계</b>	<b>120 (32.4)</b>	<b>173 (46.8)</b>	<b>2 (0.5)</b>	<b>1 (0.3)</b>	<b>12 (3.2)</b>	<b>2 (0.5)</b>	<b>2 (0.5)</b>	<b>5 (1.4)</b>	<b>13 (3.5)</b>	<b>117 (31.6)</b>	<b>24 (6.5)</b>	<b>7 (1.9)</b>	<b>370 (100.0)</b>	

NOTE : CIG, CIGARETTES : ALC, ALCOHOL : MAR, MARIJUANA : COC, COCAINE : STM, STIMULANTS : HAL, HALLUCINOGENS : INH, INHALANTS : TRN, TRANQUILIZERS : HYP, HYPNOTICS : ANG, ANALGESICS : ATT, ANTITUSSIVES : AHT, ANTIHISTAMINES.

**TABLE 5.** Delinquent Behaviors among Drug Users

	CIG	ALC	MAR	COCAINE	STM	HAL	INH	TRN	HYP	ANG	ATT	AHT
	YES	NO	YES	NO	YES	NO	YES	NO	YES	NO	YES	NO
N=120	250	173	197	2	368	1	369	12	358	2	368	5
UEA	38	17	39	16	2	53	-	55	1	54	2	53
	(31.7)	(6.8)	(22.5)	(8.1)	(100.0)	(14.4)		(14.9)	(8.3)	(15.1)	(50.0)	(14.7)
DH	41	18	45	14	2	57	1	58	2	57	1	58
	(34.2)	(7.2)	(26.0)	(7.1)	(100.0)	(15.5)	(100.0)	(15.7)	(16.7)	(15.9)	(50.0)	(15.8)
AS	23	2	23	2	2	23	-	25	2	23	1	24
	(19.2)	(0.8)	(13.3)	(1.0)	(100.0)	(6.3)		(6.8)	(6.7)	(6.4)	(50.0)	(6.5)
DW	31	10	37	4	2	39	-	41	3	38	1	40
	(25.8)	(4.0)	(21.4)	(2.0)	(100.0)	(10.6)		(11.1)	(25.0)	(10.6)	(50.0)	(10.9)
BM	28	14	34	8	2	4	-	42	1	41	1	41
	(23.3)	(5.6)	(19.7)	(4.1)	(100.0)	(10.1)		(11.4)	(8.3)	(11.5)	(50.0)	(11.1)
SI	25	6	27	4	1	30	-	31	2	29	1	30
	(20.8)	(2.4)	(15.6)	(2.0)	(50.0)	(8.2)		(8.4)	(16.7)	(8.1)	(50.0)	(8.2)
ADV	90	64	116	38	2	152	-	154	8	146	2	152
	(75.0)	(25.6)	(67.1)	(19.3)	(100.0)	(41.3)		(41.7)	(65.7)	(40.8)	(100.0)	(41.3)
PH	97	58	133	22	2	153	-	155	7	148	2	153
	(80.8)	(23.2)	(76.9)	(11.2)	(100.0)	(41.6)		(42.0)	(58.3)	(41.3)	(100.0)	(41.6)

NOTE : CIG, CIGARETTES : ALC, ALCOHOL : MAR, MARIHUANA : COC, COCAINE : STM, STIMULANTS : HAL, HALLUCINOGENS : INH, INHALANTS : TRN, TRANQUILIZERS : HYP, HYPNOTICS : ANG, ANTAGONISTS : ATT, ANTITUSSIVES : AHT, ANTIHISTAMINES : UEA, UNEX- CUSED ABSENCE FROM SCHOOL : DH, DISAPPEAR FROM HOME : AS, ASSAULT : DW, DANGEROUS WEAPON : BM, BLACKMAIL : SI, SEX-UAL INTERCOURSE : ADV, ADULT VIDEO : PH, PUB HOUSE.

TABLE 6.

Drug Users among Delinquents

	UEA		DH		AS		DW		BM		SI		ADV		PH	
	YES	NO														
	N=55	315	59	311	25	345	41	329	42	328	31	339	154	216	155	215
CIGARETTES	38	82	41	79	23	97	31	89	28	92	25	95	90	30	97	23
	(69.1)	(26.0)	(69.5)	(25.4)	(92.0)	(28.1)	(75.6)	(27.1)	(66.7)	(28.0)	(80.6)	(28.0)	(58.4)	(13.9)	(62.6)	(10.7)
ALCOHOL	39	134	45	128	23	150	37	136	34	139	27	146	116	57	133	40
	(70.9)	(42.5)	(76.3)	(41.2)	(92.0)	(43.5)	(90.2)	(41.3)	(81.0)	(42.4)	(87.1)	(43.1)	(75.3)	(26.4)	(85.6)	(18.6)
MARIHUANA	2	-	2	-	2	-	2	-	2	-	1	1	2	-	2	-
	(3.6)		(3.4)		(8.0)		(4.9)		(4.8)		(3.2)	(0.3)	(1.3)		(1.3)	
COCAINE	-	1	1	-	-	1	-	1	-	1	-	1	-	1	-	1
		(0.3)	(1.7)			(0.3)		(0.3)		(0.3)		(0.3)		(0.5)		(0.5)
STIMULANTS	1	11	2	10	2	10	3	9	1	11	2	10	8	4	7	5
	(0.8)	(3.5)	(3.4)	(3.2)	(8.0)	(2.9)	(7.3)	(2.7)	(2.4)	(3.4)	(6.5)	(2.9)	(5.2)	(1.9)	(4.5)	(2.3)
HALLUCINOGENS	1	1	1	1	1	1	1	1	1	1	1	1	2	-	2	-
	(1.8)	(0.3)	(1.7)	(0.3)	(4.0)	(0.3)	(2.4)	(0.3)	(2.4)	(0.3)	(3.7)	(0.3)	(1.3)		(1.3)	
INHALANTS	2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3.6)		(1.7)	(0.3)	(4.0)	(0.3)	(2.4)	(0.3)	(2.4)	(0.3)	(3.2)	(0.3)	(0.6)	(0.5)	(0.6)	(0.5)
TRANQUILIZERS	2	3	2	3	1	4	2	3	1	4	-	5	5	-	2	3
	(3.6)	(1.0)	(3.4)	(1.0)	(4.0)	(1.2)	(4.9)	(0.9)	(2.4)	(1.2)		(1.5)	(3.2)		(1.3)	(1.4)
HYPNOTICS	1	12	3	10	1	12	2	11	2	11	5	8	7	6	9	4
	(1.8)	(3.8)	(5.1)	(3.2)	(4.0)	(3.5)	(4.9)	(3.3)	(4.8)	(3.4)	(16.1)	(2.4)	(4.5)	(2.8)	(5.8)	(1.9)
ANALGESICS	16	101	23	94	10	107	17	100	13	104	15	102	62	55	56	61
	(29.1)	(32.1)	(39.0)	(30.2)	(40.0)	(31.0)	(41.5)	(30.4)	(31.0)	(31.7)	(48.4)	(30.1)	(40.3)	(25.5)	(36.1)	(28.4)
ANTITUSSIVES	2	22	4	20	2	22	3	21	41	20	-	24	13	11	11	13
	(3.6)	(7.0)	(6.8)	(6.4)	(8.0)	(6.4)	(7.3)	(6.4)	(9.5)	(6.1)		(7.1)	(8.4)	(5.1)	(7.1)	(6.0)
ANTI-HISTA-MINES	-	7	2	5	2	5	1	6	-	7	-	7	5	2	6	1
		(2.2)	(3.4)	(1.6)	(8.0)	(1.4)	(2.4)	(1.8)		(2.1)		(2.1)	(3.2)	(0.9)	(3.9)	(0.5)

NOTE : UEA, UNEXCUSED ABSENCE FROM SCHOOL ; DH, DISAPPEAR FROM HOME ; AS, ASSAULT ; DW, DANGEROUS WEAPON ; BM, BLACKMAIL ; SI, SEXUAL INTERCOURSE ; ADV, ADULT VIDEO ; PH, PUB HOUSE.

## 6. 불만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불만도에 대해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사회와 국가에 대한 불만도가 59.2%, 59.6%로 각각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인 반면, 자기자신에 대해서는 43.5%로 불만정도가 낮았고, 여자는 자기자신에 대한 불만도가 56.5%로 가장 높은 불만도를 보인 반면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는 40.8%, 40.4%로 가장 낮은 불

만도를 나타내 남·여학생간의 대조적 차이를 보였다. 학교별로는 인문계 고등학교 경우 자신에 대한 불만이 66.1%로 가장 높고, 사회에 대한 불만은 54.9%로 가장 낮았으며, 실업계 고등학교 경우 사회에 대한 불만이 45.1%로 가장 높은 반면 자신에 대한 불만은 33.9%로 가장 낮은 불만도를 보였다.

TABLE 7.

Distribution of Complaint by Sex and School

	SELF	FRIEND	FAMILY	SCHOOL	SOCIETY	GOVERNMENT
<b>SEX :</b>						
MALE	73 (43.5)	52 (49.5)	50 (53.2)	88 (55.0)	126 (59.2)	109 (59.6)
FEMALE	95 (56.5)	53 (50.5)	44 (46.8)	72 (45.0)	87 (40.8)	74 (40.4)
<b>SCHOOL :</b>						
GENERAL	111 (66.1)	65 (61.9)	54 (57.4)	95 (59.4)	117 (54.9)	107 (58.5)
VOCATIONAL	57 (33.9)	40 (38.1)	40 (42.6)	65 (40.6)	96 (45.1)	76 (41.5)
TOTAL	168 (45.4)	105 (28.4)	94 (25.4)	160 (43.2)	213 (57.6)	183 (49.5)

※ 1인 1답 이상으로 응답총수에 대한 %임

#### IV. 고찰 및 제언

청소년들의 약물남용 양상이나 유병률에 대한 정확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약물남용은 중요한 문제로 이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14가지 약물의 경험도를

조사했고 이를 국내·국외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본 연구의 결과가 미국이나 국내 타 연구의 결과보다 대부분 약물의 경우 약물경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미국학생의 경우 약물사용 경험도가 남·여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본 조사나 기존 한국의 조사<sup>9)</sup>에서는 남·여 차이가 현저히 나타난다는 것이다. 미국<sup>9)</sup>(1988)의 흡연 경험자 66.4% (남자 65.4%,

'TABLE 8.

Trends in Drug Use by Adolescents of Korea and U.S.A

	male					female					total				
	Korea <sup>9)</sup>		USA <sup>7)</sup>			Korea		USA			Korea		USA		
	1990*	1989	1982	1988	1982	1990*	1989	1982	1988	1982	1990*	1989	1982	1988	1982
cigarettes	55.0	62.2	69.6	65.4	67.8	5.9	26.8	5.7	67.4	72	32.4	44.5	38.5	66.4	70.1
alcohol	70.5	92.0	90.1	92.1	93.4	18.8	48.2	41.5	92	92.4	46.8	70.1	66.5	92	92.8
marijuana	1.0	2.0	3.3	49.8	61.5	0.0	0.9	0.1	44.5	55.5	0.5	1.5	1.8	47.2	58.7
cocaine	0.5	1.4	NA	13.6	18	0.0	1.2	NA	10.9	13.7	0.3	1.3	NA	12.1	16
stimulants	0.3	16.7	21.8	18.4	26.8	3.5	13.2	37.4	20.9	28.2	3.2	15.0	29.4	19.8	27.9
amphetamines	0.0	0.6	NA	NA	NA	0.0	0.6	NA	NA	NA	0.0	0.6	NA	NA	NA
narcotics	0.0	0.3	0.3	9.2	10.6	0.0	1.1	0.2	7.9	8.6	0.0	0.7	0.2	8.6	9.6
hallucinogens	1.0	1.7	1.7	10.8	14.4	0.0	1.1	0.5	6.8	10.2	0.5	1.4	1.1	8.9	12.5
inhalants	1.0	3.4	7.4	19.5	15.3	0.0	3.1	4.9	14	10.4	0.5	3.3	6.2	16.7	12.8
tranquillizers	2.0	1.7	5.7	9	13.8	0.6	1.2	7.2	9.6	14.2	1.4	1.5	6.4	9.4	14
hypnotics	4.5	3.7	NA	8	16	2.4	1.7	NA	7.5	14.1	3.5	2.7	NA	7.8	15.2
analgesics	33.0	36.7	NA	NA	NA	30.0	28.0	NA	NA	NA	31.6	32.4	NA	NA	NA
antitussives	5.5	1.2	7.1	NA	NA	7.6	1.7	11.7	NA	NA	6.5	1.5	9.4	NA	NA
antihistamines	3.0	3.2	0.5	NA	NA	0.6	0.6	1.2	NA	NA	1.9	1.9	0.8	NA	NA

NOTE : NA, indicates data not available

\* 본 조사의 결과

여자 67.4%)를 본 조사의 32.4%(남자 55.0%, 여자 5.9%)와 주왕기<sup>12)</sup>등이 조사한 44.5%(남자 62.2%, 여자 26.8%)와 비교하여 보면 남·여간의 현격한 차이가 있었고, 본 조사의 흡연 경험률이 외국이나 타 지역보다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현숙(1989)<sup>13)</sup>의 제주지역 여대생의 흡연 실태 조사에 따르면 여대생의 13.4%가 흡연 경험이 있고, 최초 흡연시기가 대학교인 경우가 78.3%로 나타나 대부분 여학생이 대학 입학 후 흡연 경험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음주의 경우 미국(1988)은 92%(남자 92.1%, 여자 92.0%)이고, 주왕기동(1989)의 결과에서는 70.1%(92.0%, 48.2%)였고<sup>14)</sup>, 본 조사에서는 46.8%(남자 70.5%, 여자 18.8%)를 나타내 미국은 남·여의 차이가 없었으나 한국은 남·여 차이가 심하고 제주지역이 주왕기동<sup>15)</sup>이 조사한 춘성·춘천 지역보다 음주 경향도가 낮게 나타났다. 대마의 경우 미국과 한국의 학생간에 차이가 심하며 미국 학생들의 경향도가 월등히 높았다. 한국청소년의 대마초 흡연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민병근(1978)<sup>16)</sup>은 청소년 학생(12~21세)의 대마초 흡연율은 1975년에 5.6%이던 것이 1978년 조사에서 2.1%로 감소되었고, 주<sup>17)</sup>(1989)의 조사는 1.5%가 본 조사는 0.5%가 경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sup>18)</sup>의 조사에서는 82년도에 본드 사용이 14.9%(남자 18.6%, 여자 11.1%)였던 것이 89년도에 3.3%로 감소하였고, 본 조사에서는 0.5%로 나타났다. 각성제의 경우도 주<sup>19)</sup>의 조사에서 82년에 29.4%가 89년에 15.0%를 보였고, 본 조사에서는 3.2%로 나타났다. 수면제의 경우 미국은 15.2%(1982), 7.8%(1988)였고, 주<sup>20)</sup>(1989)의 조사는 2.7%를 보였고 본 조사는 3.5%로 수면제 복용 경험이 미국보다 적지만 춘성·춘성지역 학생보다 높았다. 특히 한 것은 진해제의 복용 경험이 주<sup>21)</sup>(1989)의 1.5%에 비해 6.5%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 진해제 복용 연령이 10세이전이 3.5%로 나타나 의학적인 목적에 사용한 부분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겠다.

과거에 약물남용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 학생은 10%(남자 15%, 여자 4.1%)이고, 받은 적이 없는 경우가 90%로 나

타나, 앞으로 약물남용과 관련된 전문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약물남용의 가장 바람직한 예방대책은 약물남용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방법으로 교육은 약물남용의 취약성이 높은 청소년기가 시작되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본다.

한편 약물남용과 일반적 특성파의 관계를 보면 각성제와 진해제를 제외한 대부분 약물이 여자보다 남자의 경험률이 높았고, 경제상태가 빈곤할수록 약물사용 경험도가 높았는데 약물남용은 가족 및 외부환경과 연관된 요인들에 의해 중요한 영향을 받으며 낮은 사회경제그룹 출신의 젊은 사람들이 부유한 그룹보다 약물과 관련된 문제들이 더 많다. 이는 현실적이며 보상이 될만한 대안이 없고, 합법적인 역할 모델(role model)의 결핍으로 인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약물복용 행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sup>22)</sup> 동거형태에 따른 약물경험도에서 혼자 거주할 때 높게 나타난 것은 주위 부모나 형제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행동함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의 교육방식이 보수적일수록 약물사용 경향도가 높고, 민주적일수록 낮은 경향도를 보였는데 이는 양친의 태도가 청소년의 약물복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이혼·가정불화 등의 파탄가정이나 특히 부모들의 자녀 양육 방법이 극단적인 보호·거부(protection-rejection)의 양상을 보일 때 약물남용이나 비행이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sup>23)24)</sup> 또한 민<sup>25)</sup>(1981)의 부모의 양육방식이 고교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가 자녀를 불신할수록 훈육방침이 전제적이고, 구속적이고, 보수적이고, 처벌위주일수록 자녀의 공격성향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약물남용과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보면 약물사용 경험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문제행동이 많고, 문제행동의 경험이 많은 사람중에 약물사용 경험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 결과로 약물남용과 문제행동간의 선후관계를 규명하기는 어려웠다. 이길홍<sup>26)</sup>(1985)의 청소년 비행과 약물파의 관계분석에서 비행 청소년일수록 학생 청소년에 비해 약물상습 사용자가 많았고 변상호<sup>27)</sup>(1978)와 sheran<sup>28)</sup>(1972)의 연구에서도 비행 청소년의 약물남용률이 일반청소년보다 훨씬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청소년의 약물남용이 비행

의 측면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청소년 약물남용은 예방적인 측면이 중요하며, 만약 약물남용 청소년이 발생했을 때는 약물남용 그 자체 뿐 아니라 다른 제반 문제들, 즉 정신과적 장애 혹은 학습장애 및 학교문제, 가족관계, 청소년기에 겪어야 할 정상 발달 과정 등을 고려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청소년 약물남용에 관심을 가져야 할 공통과제<sup>17)</sup>는 제일 근원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로 약물관리를 들수 있고, 다음으로는 과제의 일부가 학교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선 약물남용에 빠진 학생을 찾아내어야 하고 이들이 절대 처벌이나 비난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하며, 취약성 있는 학생들로 하여금 약물을 빠져들지 않도록 예방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약물문제를 비롯한 비행으로 빠져드는 경우 그 원인의 제일 큰 부분은 자기역할 상실에서 비롯된다고 보며 이는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청소년은 자기주체성을 찾기 어렵고, 약물남용이나 비행의 취약성이 있는 학생일수록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약물이나 비행으로 빠져들 기회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약물남용의 원인은 매우 복잡하고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비롯되기 때문에 청소년 약물남용의 동기를 이해하기 위해 약물남용시의 상황과, 남용자의 성장과정이나 성격 발달상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의 환경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즉 가정, 학교 또래집단(peer group) 및 사회적 요인들의 관계성을 규명하는 것이 청소년 약물남용의 동기와 그 대책을 강구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라고 사료된다.

## V. 결 론

제주도내 9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여학생 37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1990년 10월에서 12월까지 질문지에 의하여 약물남용과 문제행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약물사용 빈도를 볼 때 14가지 약물의 사용 경험률은 흡연 32.4%(남자 55.0%, 여자 5.9%), 음주 46.8%(남자 70.5%, 여자 18.8%), 대

마 0.5%, 코카인 0.3%, 각성제 3.2%, 환각제와 본드 0.5%, 신경안정제 1.4%, 진통제 31.6%, 진해제 6.5%, 항히스타민제 1.9%였고 필로폰과 마약은 사용 경험이 없었다. 각성제와 진해제를 제외한 모든 약물에서 남학생의 사용 경험도가 여학생보다 높았다.

2. 대부분 약물에서 남·여학생의 경우 모두 17~18세 사이에 약물사용 첫 경험도가 가장 높았고, 사용일수를 보면 담배의 경우 남학생의 24.5%, 여학생의 0.6%가 매일 흡연하였고, 음주의 경우 남학생의 4.5%가 매일 음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3. 담배 흡연율은 종교가 불교인 경우 높았고, 기독교인 경우 낮게 나타났으며 음주는 종교가 없는 경우 가장 높았다. 경제상태가 빈곤 할수록 약물 사용 경험도가 높았고, 혼자 거주할 때가 다른 사람과 동거할 때보다 약물경험도가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방식이 보수적일수록 약물사용 경험률이 높고 민주적일수록 낮았다.

4. 약물사용 경험자들이 비경험자들에 비교하여 문제행동 정도가 높아 흡연의 경우 약4배, 음주와 대마는 약 5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문제행동 경험자들 중 약물사용 경험도가 높게 나타났다.

## 참고문헌

1. 김현수·유영식·나철·이철·민병근: 청소년과 약물문제, 중앙의 대지, 제13권 제3호, pp417-424, 1988
2. Connell, P.H.: Addiction in Adolescence, Some Comments about Its Diagnosis, Treatment, and Vulnerable Groups., Community Health 6, pp 29-33, 1979.
3. Macdonald, D.I.: Drugs, Drinking and Adolescents, Year Book Medical Publishers, Chicago, pp 96-110, 1984.
4. Casey, E.: History of drug use and drug users in the United States, In :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pp 79-128, 1979.
5. 保健社會部, 藥物 誤·濫用, pp 4-5, 1988.
6. 이길홍 외 5인: 청소년 비행의 약물 상관변인 분석, 한국의 과학, 제17권 제2호, pp

- 130-146, 1985.
7. Johnston, L.D., Bachman, J.G., and O'Malley, P.M. : Illicit drug use, Smoking, and drinking by America's high school students, college students, and young adults(1975~1987).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pp. 307, 1987.
  8. Smart, R.G., et al : A methodology for student drug-use surveys. WHO, Geneva, 1980.
  9. 주왕기·노성규·차홍준·백영호·이은송 : 청소년의 약물남용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1), 강원대학교 학생생활연구, 제9집, pp 63-83, 1989.
  10. 김현숙 : 제주지역 청소년 음주양상에 관한 사회보건학적 연구, 제주간호보건전문대학 논문집, 제12집, pp 169-202, 1988.
  11. 김현수 : 青少年 家出의 家族力動에 關한 研究, 한국의 과학, 제12권 제3호, pp 35-69, 1980.
  12. 金賢淑 : 濟州地域 女大生의 吸煙行態 및 保健意識에 關한 調査 研究, 제주간호보건전문대학 논문집 제13집, pp 155-185, 1989.
  13. 민병근 : 한국 청소년의 대마초 흡연실태에 관한 종단적연구(1975년 및 1978년), 한국의 과학, 제12권, 제3호, pp 19-31, 1980.
  14. 서울特別市教育研究院 : 藥物 誤·濫用 防止指導, 學生事案의 防止과 指導 第7號, 1988.
  15. Hale, M.S. Hesselbrock, J. and Hesselbrock, V. : Childhood Deviance and Sociopathy in Alcoholism, J. Psychiatr. Treat. Eval., Vol. 4, pp 33-36, 1982.
  16. 민병근, 이길홍, 김현수 : 父母의 養育方式이 高校生의 攻擊性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社會精神 醫學的 研究, 한국의 과학, 제13권 제2호, pp 53-69, 1981.
  17. 변상호, 이태복, 이년수 : 청소년의 습관성 약물등의 남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국립 과학수사연구소 연보, 제13권, pp 32-36, 1978.
  18. Sheran, C.R. and Fitzgibbons. : Patterns of Drug Use in a Population of Youthful Psychiatric Patients, Am. J. Psychiatry, Vol 138, pp. 1381-1387, 1972.